

로 되어 있으며 安公의 九代祖가 兄弟로서 安公은 兄弟中 弟邦炯의 後요. 兄 邦烈의 後孫(十世孫)으로 絢이 있으며 이 사람은 安公의 조카딸이 되는 사람이니 後考에 미룬다.

⑤ 同譜 安公 祖父列에

「相奭、進士李益輝女」

⑥ 同譜 安公 父列에

「允成、李廷高女」

⑦ 璿源世系 世宗大王後系(十二面)에

「五男密城君琛 慎嬪金氏出」라 있고 成宗實錄 卷一〇〇成宗十年 正月 戊午條에

「密城君琛卒(中略)卒年五十、諡 章孝(下略)」라 있다.

⑧ 文脈上으로 「丁母夫人憂하고 過毀하여 嬰奇疾이라」

⑨ 典故大方 陶菴門人錄에

「安宗茂 如松」라 있고, 朝鮮名臣錄 竹山安氏條에

「安宗茂(中略)從陶菴學 甚重之(下略)」

⑩ 英祖가 安公을 獎諭하고 그를 特遇하였다함이 屢次 보이며 특히 擬로서 受點되었다 함도 드문 일이니 이러한 사정과 文脈으로 「臨講에 每有安某善教」라 남음

⑪ 우리말에 卑復이다. 하면 招魂을 뜻함이니 여기서는 別世하였다는 뜻으로 봄(국어 새사전 六四面 高복조)

⑫ 陶菴二字를 넣음은 墓誌에 菴字는 아니 보이나 陶字中 「阝」此劃은 살릴 수 있음에서 이다.

⑬ 萬姓譜 安公同列에 그 同生이 둘 있으니 宗耆와 宗秀라, 秀는 縣監을 지냈다하고 耆에는 아주 기록이 없으니 宗秀의 所述이 아닌가 한다.

⑭ 陶磁器 굽는 것을 우리는 燔造라 일러 왔고 大典會通工典 雜令條에

「司窰院燔造磁器、一年二次、春秋進上」이라 있음

⑮ 號譜 義卷 齊號條에

「安宗茂(中略)從陶菴學、陶菴重之、好誘掖後進」

金海郡 甘露里的 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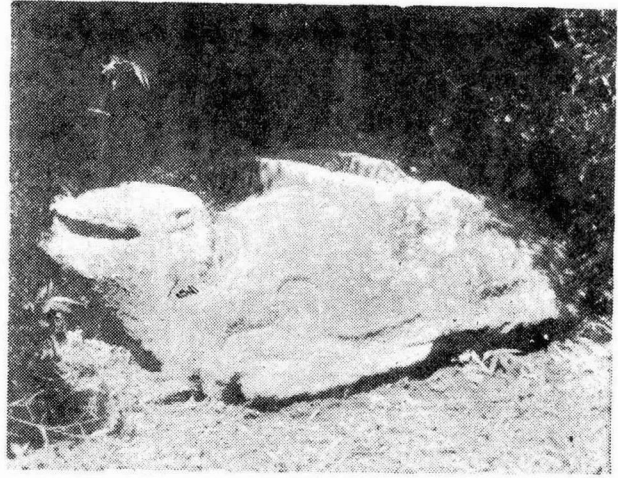
鄭 永 鎬

昨年八月에 金海郡上東面甘露里 新谷部落의 廢寺址를 踏查하여 數種의 遺物을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이 一帶를 甘露寺址라 傳稱하는 바 이에 對한 記錄은 東國輿地勝覽①과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② 등에서 볼 수 있는데 「甘露里」라는 地名도 寺名에서 由來된 바 라 한다. (洞民談話)③

이곳은 許氏家門에서 約一〇〇年前에 住居하여 現在 五代에 이르렀다고 하는 바(四一三番地 許宦——當四五歲) 지금은 約三〇戶의 部落이 形成되어 있다. 洞里의 東北方 臥牛山下에는 二段의 石築과 三層石塔이 現存하고 各家戶에는 礎石、蓮花臺石、浮屠破片等 當代遺物이 散在하였는데 그中 花崗石龜趺가 注目되었다.

一、石築과 三層石塔

石築은 大、小、石材로 構築한 通例形成이고 下壇高二·五m 長一六m 上壇高三m 長一〇m로 南向山麓인데 지금은 모두 耕作地가 되고 或間 瓦片和 礎石이 發見된다. 石塔은 下石築東側에 位置하였는데 下基와 塔身一部가 埋沒되어 現高二·一m로서 一、二層의 屋身을 缺하고 있다. 上基面石은 高六〇cm、幅九四·五cm이며 中央의 撐柱(幅一三·五cm)로 兩區分되고 兩端에는 隅柱(幅二三·五cm)가 刻出되었다. 上甲石에는 浮椽이 있고 上面에는 角形받침 一段과 四分圓의 물받침 그위 角形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다. 屋蓋받침은 各四段으로 낮은 便이다. 三層屋身은 高一六cm、幅三七·五cm인바 幅七·八cm의 隅柱가 있으며 三層屋蓋石上面에는 徑七·五cm 深一一·五cm의 擦柱孔이 있다. 落水面이 急한 便이며 轉角이 重厚하나 撐柱나 副緣等이 注目되며 麗代의 佳作일 것이다. 앞으로 發掘再調있기를 期待한다.



二、龜趺

許宙氏宅後庭에 現存하는 바 盤石이 없고 四足은 龜甲四隅下에 線刻되었다. 印에는 如意珠를 물고 龜首는 腹皮와 背甲사이에서 나왔으며 頭部의 兩目、鼻等의 彫刻이 形式에 홀렸고 奇怪感은 적다. 背甲에는 線刻紋이 있고 背椎骨이 刻出되었으며 中央에 碑座가 있으나 아무런 彫飾이 없다. 各部 彫刻이 整齊되지 못했는데 手法

로 보아 年代는 高麗下代로 推定된다. 傳聞한 바에 依하면 近年까지도 碑身破片에 있었다고 하는데 現在는 全無하다. 한편 約四〇年前이 곳에서 遺物이 出土되었는데 當時 當局에 納品되었다고 하며 同時遺物이라는 蓮瓣石이 龜趺 옆에 現存하여 注目되었다. 實測值는 座邊 橫一·三m 縱二·四m 龜高七〇cm 碑座 橫九二cm 縱二四cm 深九·五cm

三、其他遺物

(1) 蓮花臺石 八角으로 半埋沒됨 一邊長 五二cm、上面에 圓形突起가 있는바 徑은 六五cm、十三瓣이 彫刻됨. 年代는 麗代、石燈中臺石으로 推定、

(2) 倒壞된 浮屠 ①灰青色의 水成岩、全長 七三cm의 長卵形인 上部에 蓮瓣이 彫刻됨. ② 高約五〇cm 花崗石 圓形 塔身에 「……堂大師

曉和」의 陰刻銘이 있음(字大 九一〇cm)

※ 코—는 釜山에서 上行列車便으로 「원동」驛下車、渡船場에서 洛東江을 건너 바라보는 三部落中 中間에 位置한 곳으로 約二km 徒步

註

- ① 卷之三十二 金海都護部佛宇條 在神魚山東、臨玉池淵、宋理宗嘉熙元年、僧海安所建。有僧蒙庵記、安裕詩、云云……
- ② 「甘露寺址」稱스 嘉熙元年僧海安ノ建スル所ナリト謂フ 高サ五尺八寸ノ四重ノ方塔一基在リ。白蓮庵址ト稱스 甘露寺ノ末菴ナリシト謂フ」라 있다.
- ③ 이 곳에는 「鎮南樓가 있었다는 바 이 部材는 韓末에 金海邑의 「燕子樓」에 使用되었다고 함

考古美術 卍—스

◎ 國立博物館세미나

月例로 열리라고 하는 國立博物館세미나는 처음으로 二月五日午後四時부터 다음과 같이 國立博物館에서 열렸다.

西佛 가르나크 先史遺跡에 關하여 (韓炳三)

◎ 楊州郡 長興面 五峰麓 陶窯址 發見 調査

國立博物館美術課에서는 今月三日 五峰麓에서 窯址를 發見하고 七日 崔淳雨美術課長 引率로 同課員 一行이 現地를 調査하였다.

約千餘坪의 傾斜面에 자리 잡고 있는 同窯址는 發見된 破片으로 볼때 麗末에서 李朝中葉까지 存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一九六三年度 文化財委總會 開催

日 時 一九六三年 二月 十二日 下午 二時